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3/31(수) 요한복음 ③ 10-13장

1-9장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1-5장 Come and See
6-9장 너희도 가려느냐

10-17장 그리스도인의 언약

▶ 10-13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4-17장 그리하면 이루어라

18-21장 그리스도인의 사명

18-21장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Before 줄치며 읽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을
표시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나는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11:4, 새번역).”

나사로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하길 원하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 잠든 친구를 깨우러 출발하십니다.

제자들의 눈에 그런 예수님은 이상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생뚱맞은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11:16).

급박한 위기 앞에 우리는 종종 마음이 앞서갑니다.

“주님, 이렇게는 못 삽니다. 당장 빨리 해결해주세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듯,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속도를 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을 구하십시오.

주님보다 앞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십시오.

성격이 급하든 느긋하든, 기도하기 위해

좌우를 잘 살펴보고,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춰서’ 그 문제에 대해 온전한 평안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삶의 결정에 필요한

‘거룩한 속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참고도서

HOW주석

IVP성경배경주석

LAB주석

WBC주석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통성경 길라잡이

하루만에 꿰뚫는 성경관통

하나님의 속도(테리 루퍼)

나사로의 사건은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나사로를 통해 죽음을 이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녀 안에 예수님 본연의 능력이 희미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날이 드러납니다. 신앙이 확인됩니다.

감정에 이끌려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잠 4:23).

나의 신앙의 한계선 너머에 ‘선 밖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만나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요 11: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

눈앞의 고통, 절망, 죽음, 인간의 한계 너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11:53).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12:43).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 때, 악이 기승을 부립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눈앞에 두고 드린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12:27-28).”